

장성군 '편백나무 산업화' 박차

산림청·나노바이오센터와 업무협약

피톤치드·화장품 개발 등 공동연구

장성군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편백나무 숲고을을 SAFE사업'에 나서 향토자산인 편백나무 산업화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나노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김양수 장성군수를 비롯해 이재의 나노바이오센터 소장, 양민석 서부지방산림청영암관리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편백나무 숲고을을 SAF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편백나무 활용 고부가가치화 및 상호관심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과 연구, 시험 인력 교육 및 교류, 학술회의·세미나·워크숍 등 공동개최 등을 약속했다.

또한 산림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 나무심기, 숲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산문화 캠페인 등 산림보호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편백나무 숲고을을 SAFE' 사업은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을 들여 오는 2013년까지 편백피톤치드산업관을 건립하고 인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축령산을 종합적

인 치료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아로마 향장품 개발과 피톤치드 추출분리 등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하

게 된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주진되는 편백나무 숲고을을 SAFE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향토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농림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편백나무 숲고을을 SAFE 사업이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성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우리 군의 축령산 산림자원을 잘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전국 최대의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장성 축령산. 장성군은 축령산 편백나무에서 피톤치드를 추출하고 아로마 향장품을 만드는 등 산업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 도암 옥수수 25만개 이마트 공급

화순 도암 옥수수가 대량으로 이마트에 공급된다.

화순군은 도암 옥수수 영농조합은 최근 화순농특산물유통조합을 통해 이마트에 옥수수 25만개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완료하고 지난 21일 첫 출하를 했다고 밝혔다.

화순 도암면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옥수수 재배 적지로 꼽히고 있다.

화순군은 일찍이 도암 옥수수를 전략품목으로 선정해 옥수수 재배단

지에 200여평 규모의 옥수수 가공공장을 갖추고 농산물 시장개방 시대에 대비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옥수수를 탈피·선별·세척·증숙·냉각·진공 포장하는 전자동 시스템을 갖추고 대량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암 옥수수가 이마트에서 판매됨에 따라 옥수수 재배 농가의 소득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화순군 도암 옥수수 이마트 공급체결식

나주금성고 '뮤지컬 방황하는...' 대상

전남청소년연극제

전남청소년연극제(회장 김진호)는 제20회 전남청소년연극제 대상에 나주금성고의 '뮤지컬 방황하는 별들'이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19일부터 4일간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은 목포 정명여고 '홀당부'가 차지했으며 연기대상에 남승민(나주 금성고 3년)군, 최우수주연상에는 최은진(나주고 3년)양이 수상했다.

특히 연극제 기간 중에는 관람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 강좌, 역사속 나주인물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대상인 '방황하는 별들'은 다음달 10일부터 국립극장 자유소극장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연극제 전남대표로 참가한다.

전남 6개 시군 청소년 연극팀이 지역과 학교의 명예를 걸고 경연을 벌였으며 전문 심사위원 이외에 처음으로 청소년 심사위원단 170명이 심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장인 희곡작가 최송림씨는 "전체적으로 작품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개인 연기력도 뛰어나 다른 어떤 대회보다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연극제 기간 중에는 관람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 강좌, 역사속 나주인물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대상인 '방황하는 별들'은 다음달 10일부터 국립극장 자유소극장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연극제 전남대표로 참가한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화순군은 도암 옥수수 25만개를

화순군은 도암 옥수수 25만개를